

‘광주·전남 국가 산단’ 예정 함평군 월야면 일대

부동산 문의·거래 활발

땅값 2배 ‘굉충’ ... 지역경제도 활기

‘광주·전남 공동 국가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함평군 월야면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함평군 월야면 일대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업체 20여 곳이 입주해 있으며,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월야면 일부 지역은 평당 2만~3만원에서 7만~8만원으로 올랐으며 가격 상승 기대로 매입 문의가 늘고 있다. 또 유동인구의 증가로 식당과 슈퍼 등의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산단 조성이 가시화

될 경우 기업체 입주 등으로 상주 인구가 증가해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단 조성을 계기로 도·농 복합도시 개발 계획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월야면 Y식당 대표는 “국가산단 조성 발표로 예전에 비해 매출이 늘고 있다”며 “도시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등 확실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7일 ‘광주·전남 공동 국

가산단 타당성 용역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국토연구원과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산업단지 수요 및 타당성 분석 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단 조성 예정지는 함평 월야면과 광산구 삼거동 일대 1천653만㎡(500만평) 규모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산단조성 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2010년 착공해 2014년 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자동차와 조선·항공기 관련 첨단부품 소재산업을 비롯해 신약·의료·제약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집중 유치될 전망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음천 토하젓 상품화

강진군 특허 출원

강진군이 지역 특산품인 음천 토하와 녹차를 섞어 만든 음천 토하젓을 상품화 한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녹차 조미액과 소금을 이용한 토하젓의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특허내용은 ▲녹차 생엽으로 부터 손쉽게 녹차 추출액을 얻는 방법 ▲녹차 발효소금의 제조, 추출액 ▲녹차발효소금을 이용한 토하젓 제조 기술 등 3가지다. 특허기술의 공동개발자인 김동신 청자골음천토하연구소 대표는 “저가의 중국산 토하젓에 맞서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강진 토하젓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완도에 핀 극락조

완도 수목원에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극락조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지난 1991년에 문을 연 완도 수목원 온실은 3천196㎡의 면적에 300여 종의 각종 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금호호 ‘합법 어장’ 전환

10년만에 어업 허가

해남군 화원면과 산이면 사이에 위치한 금호호(2천330ha)가 10년만에 합법어장으로 전환했다. 해남군은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의 금호호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황산, 산이, 문내, 화원지역민에게 자망(그물) 15건, 연승(주낙) 4건 등 총 19건에 대해 2년동안 어업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호호의 어업은 2년마다 30명(30건)에게 재허가되며, 황산과 산이, 문내, 화원지역 거주자 중 어선 소지자에게 발급된다. 봉어와 동자개, 뱀장어 등 다양한 내수면 어종이 서식중인 금호호는 지난 98년부터 지역민들의 수면 사용동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으나, 그동안 관리기관인 영산강 사업단의 불허로 어업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나주 노안에 ‘신숙주 생가’ 복원

14억5천만원 투입

조선 초기 문신으로 4차레나 공신의 반열에 올랐던 보한재(保閑齋) 신숙주(1417~1475) 선생의 생가가 복원된다. 나주시는 노안면 금안리 277번지 일대 1만여㎡ 부지에 생가(165㎡) 복원과 편의시설 조성에 나선다. 이 사업에는 14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올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 사업에 들어간다. 나주 노안면 금안리 외가에서 출생한 신숙주는 생원과 진사 시험에 합격하고 좌의정과 우의정, 영의정 등 3정승을 두루 지낸 조선 초의 대표적

문신이다.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웠으며 일본과 명나라를 수 차례 다녀온 외교가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여진족 소탕 등 병참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 저서로 보한재집, 해동제국기 등이 있다. 신숙주는 후일 세조가 된 수양대군의 즉위에 앞장서는 등 조선 초 정치적 격동기에 4차레나 공신 반열에 올랐으나 사후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보한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보전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생가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완도 금일파출소 기초 범죄서 확립 죄담회



완도경찰서 금일파출소가 기초 범죄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금일파출소는 최근 금일읍 도장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이장과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범죄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흥은석 소장은 “자발적인 기초범죄서 지키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생활습관으로 시골 작은 마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관내 마을을 순회하면서 경찰과 주민간에 격의 없는 끈끈한 이웃을 만들기 위한 좌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좌담회를 마친 후 파출소 직원과 자율방범대원, 주민 등 20여명은 동백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폐어구 등 각종 해상 쓰레기를 수거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시, 503개 경로당에 연료 1드럼씩 추가 지원

나주시가 최근 각 마을 경로당에 동절기용 난방비 외에 연료 1드럼(200ℓ)씩을 추가 지원한다. 나주시지역에는 경로당이 503개소로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유류값 상승으로 기존 난방비가 턱없이 부족하게 돼 예산을 확보해 추가 연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은 “가정에서 보다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유류대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서류 발급 개선 ... 군청 민원실 ‘복직’

주민등록에서 자동차·부동산까지 ‘원스톱 처리’ 종합 사무과 탈바꿈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읍·면 사무소보다 군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장흥군이 지난 1월 한 달간 군청민원실에서 발급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생활민원 처리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일반 민원이 지난해 1

월 2천767건이었던 것이 올 1월에는 5천124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팩스(FAX) 민원도 950건에서 1천200여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군청 민원실 이용이 급증한 것은 가족관계 증명(구 호적 등·초본)처럼 올해부터 모든 민원서류가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은

라인 민원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법원을 끼고 있는 지자체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군청 민원실 한곳에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광수 민원처리과장은 “지금까지 일반 민원 창구는 대부분 읍·면사무소가 맡아 왔으나 이제는 시·군청 민원실이 민원서류 발급부터 모든 업무를 동시에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 사무과로 탈바꿈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부동산 특조법 따른 소유권 이전 전남도 40만8천 필지 ‘전국 최다’

전남도가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 시적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 완료한 결과, 총 40만8천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27만3천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13만5천필지는 공고 중에 있다. 현재 확인서를 신청했거나 확인서를 발급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 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신안군이 4만8천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고흥 3만9천필지, 진도 3만2천필지 순이며 지역별로는 농지 2만7천필지, 임야 6만6천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시 신청인은 법무사 수수료 할인 및 취득세 면제 등으로 1천300여여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졌고 전남도는 등록세 납부로 715여여원의 세입 증수 성과를 거뒀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도가 지난 1999년부터 4회에 걸쳐 부동산특별조치법 재시행을 지속적으로 결의한 것이 결실을 맺어 지난 2년간 재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오지 및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현장이동민원실’을 운영했으며 농한기에는 ‘특조법에약제’를 시행,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접수처리했다. /해회기자 chae@kwangju.co.kr

물 선물은 정방아 가득한 태전! 태전 음식 세트

www.taekjeon.co.kr 1544-8567

영어교사 양성과정 입학생모집
영어교사 23000명 내년부터 채용!

TESOL

선유힐 대학교 TESOL 4학기 / 사든 크리스찬 대학교 TESOL 4학기 / 아메리칸 리버티대학교 TESOL 4학기

TESOL 자격증과 학위증서 同時 취득!

www.tesolamerica.com
www.tesol.kr
call: daum.net/job05

TESOL 아메리카 센터
062-222-6253